

# 구제역,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매년 3월~5월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우리나라는 '00년·'02년 구제역 발생이후 현재까지 부단한 검역, 방역의 노력으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 위험성에 대한 긴장감이 저하되지 않도록 농가 방역의식의 함양이 필요합니다. 당시 구제역 발생원인이 수입견초·해외여행객, 외국인 근로자들로 추정되어 온 만큼, 최근 중국, 러시아 등 구제역 발생이 빈번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체여행·축산관련 전시행사 방문하는 축산농가들이 증가 하고 있고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조금도 구제역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에 농가 구제역 예방수칙 알리오니, 회원농가 여러분께서는 구제역 방역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농가 구제역 예방수칙 -

- 가급적 중국, 러시아 등 구제역 발생국 여행 및 축산농장 방문 삼가
- 해외여행시 외래축산물 반입 금지
- 차단방역 철저
  - 농장 출입자·출입 차량 철저 통제(가축·분뇨·원유·분뇨 수송차량 소독 철저)
-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 및 질병예찰의 날'을 통해 농장 소독 및 질병 예찰 정례화

### 목장 소독 절차는...

- 청소** ▶ 분변, 오줌, 사료 등을 철저히 청소
  - ▶ 구제역 발생농가 또는 의심농가 위주 소독
- 세척** ▶ 고압세척기로 축사·천장·벽 및 바닥 소독 후
  - ▶ 브러시로 분변,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
- 소독** ▶ 분무기로 소독약을 살포 (즉시 세척 피할 것)
  - ▶ 지붕, 벽, 바닥 순으로 소독, 건조 후 가축입식
  - ▶ 소독기간 경과 이후 철저한 세척 실시

- 외국인 연수생 고용시 방역지도 철저
- 황사대비 가축,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킬 것
- ▷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을 것
-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할 것
- ▷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

- 상시 축군들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의심가축 발견시 관할 읍·면·시·군,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림부 등으로 즉시 신고

- ※ 구제역 임상증상 : 입, 혀, 젖꼭지, 발굽 등 물집(수포) 형성, 심한 거품 섞인 침흘림
- ※ 의심축 신고전화 : 1588-4060/9060

